

전남교육청-서울교육청, '농산어촌유학 업무협약' 체결

오는 2021년 3월부터 전남 도내 초·중학교에 서울 학생들이 전학을 와 현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2월 7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농산어촌유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서명한 이 협약에서 두 교육청은 서로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과 생태교육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농산어촌유학을 통해 학생들을 미래인재로 키워낸다는 데 합의했다.

두 기관은 전남에 유학하는 서울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전남교육청은 서울 유학생들에게 전남의 생태교육 프로그램과 거주(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이들이 공

내년 3월부터 전남 도내 30교에 167명 유치 추진 농산어촌유학 통해 학생들을 미래인재로 키워내 전남에 유학하는 서울 학생들 정착지원방안 마련

부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또, 서울교육청은 전남 학교에 유학할 서울 지역 학생들을 모집하고 이들의 유학생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코로나19로 교육현장이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농산어촌 작은 학교가 많은 전남의 교육여건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과정 운영에 유리했다고 보고, 이를 도시 학생과 공유하지는 취지로 유학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그동안 서울교육청과 공동 TF를 꾸려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협의해왔으며, 마침내 이날 협약 체결에 이르게 됐

다. '농산어촌유학'이란 전남 의 도시 학생들이 전남 학교에 전학해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개인별 맞춤형 교육활동과 온마을 돌봄과 연계한 자연·생태·환경 체험에 참여함으로써 배움과 삶, 도전 역량을 키우게 된다는 개념이다.

도시 지역 초·중학교 학생이 대상이며, 농가에 거주하는 '홈스테이형',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이주해 생활하는 '가족체류형', 별도 공간에서 기거하는 '센터형' 등으로 운영된다.

전남교육청이 이 협약 이행을 위해 그동안 도내 학교와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순천, 담양, 곡



성, 화순, 강진 등 14개 시·군에서 30교(초 28, 중 2)가 유학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학교에 유치 가능한 유학생은 167명이며, 전남교육청은 참여 희망 학교와 농가를 더 모집해 가능한 많은 서울 학생들이 전남 학교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과의 유학프로그램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타 교육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전남교육청은 도시 학생들이 전남의 농산어촌에 유학 오면, 생태 친화적 교육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전인적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농산어촌 삶을 체험함으로써 서로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배우고 자주적 생활 능력을 길러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함양될 것이라며 기대를 갖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희연·장석웅 두

교육감과 서울교육청 강연홍 교육정책국장, 양영식 교육혁신과장, 전남교육청 범미경 혁신교육과장 등이 참석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서울 학생들은 농산어촌을 통해 도시 학교와 도시 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생태친화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면서 "흙을 밟는 도시 아이들이 순수한 생의 기쁨을 맛보며 자연과의 회복을 만들어가는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전남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우리 학생들이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감수성을 기르는 데 적합하다."면서 "서울의 학생들이 전남의 소규모 농촌학교로 유학을 오면 농촌 학교가 자극을 받고 활력이 넘치게 될 것이며 학생 수도 늘어나 교육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장흥교육청, 교육청 및 유관기관 협의회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왕명석)은 12월 4일 학교 및 지역사회기관 관계자 통합 협의회를 통해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효율적인 업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장흥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들과 장흥교육지원청에서 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1학년도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들 지원을 위한 홍보와 안내 자료 제

작,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숙려제 활성화 방안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진로 진학과 취업 연계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펼쳐졌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상황에서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역 유관기관들의 행사 및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SNS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보기로 하였다.

담양군,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꿈 잡고(Job Go)' 운영

학교 밖 청소년 대상...여러 체험 통해 직업선택에 도움

담양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지난 2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직업체험 프로그램 '꿈Job Go'는 꿈드림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후 체험을 통해 직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원하는 직업체험 수요조사를 통해 커피농장 체험과 베이킹 과정, 담양 지역의 아동센터 2곳에서 사회복지사 직업체

험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은 "체험을 통해 나에게 맞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앞으로 직업을 준비하고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해 주고 싶었다"며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준비하는 꿈드림 청소년들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담양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업포기 혹은 중단, 미취학 청소년들의 학업복귀, 자기계발, 자립 등을 위해 검정고시 지원, 취업패키지, 멘토 프로그램 등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담양=박종영기자

광주수창초, 친일잔재 청산 '교가 교체 사업' 완료

오는 2021년 개교 100주년 준비 사업 일환

광주수창초가 오는 2021년 개교 100주년 준비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역사관 구축 사업'에 이어 '교가 교체 사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921년 일제강점기에 개교한 광주수창초의 이번 '교가 교체 사업'은 개교 100주년을 맞아 친일잔재 청산 및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광주수창초 교가는 그동안 친일인사의 작사·작곡, 일본 군가풍 및 일본식 음율·음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광주수창초 학생·

학부모·교직원 등 전체 구성원들은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교가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높였다. 광주수창초는 교직원 자치회·학생 자치회뿐만 아니라 동문·동문 게시판 등으로 꾸준히 자료수집·협의·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학교 교육과정 설문조사를 통해 '교가 교체'에 대한 찬성을 얻은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광주시교육청 '교육현장 친일잔재청산지원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돼 '교가 교체'의 결실을 맺게 됐다.

광주수창초 새 교가는 노유섭 시인



(광주수창초 40회 동문 출신)의 작사 및 전 남부대 신동민 교수의 작곡으로 만들어졌다. 새 교가에는 의향·민주의 광주 역사, 광주수창초 교육목표, '지나온 100년, 앞으로 100년'의 전통과 역사·인재상 등이 담겨있다.

조인호기자

화순교육청, 교육행정 학습공동체 온라인 성과보고회 개최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식)은 12월 7일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교육행정 학습공동체의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행정 학습공동체 회원들은 '청렴문화 확산', '시설 및 재산관리 연찬', '선·후배 간 멘토링 학습'이

라는 3개 분야를 주제로 회원 50여 명이 지난 5월부터 매월 학습주제에 대해 업무연찬을 해 왔으며, 1년간의 성과 공유와 확산을 위한 성과보고회를 갖게 되었다.

'시설 및 재산관리 연찬' 분야 민정기 회장은 "효율적인 학교 밖 공

유재산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현지 답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의심 상황 발생 시 조치방안에 관한 의견제시 등 재산분야 업무개선 노후를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